

오바마, 올란드에 IS 공습 협조 약속

“러시아는 국외자” 비판
“터키, 영공 보호 권리 있어”
올란드, 독·리에도 공조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파리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함께 파괴하겠다고 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어 러시아가 IS가 아닌 시리아 온건반군에 공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IS 파괴를 위한 건설적 역할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를 국제사회와 협조하지 않는 ‘국외자’(outlier)라고 성토했다.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을 놓고는 양국 정상 모두 긴장 행위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터키는 영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올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심상치 않은 러시아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대형함정 ‘카이사르 쿠니코프’가 포스푸르스 해협에서 터키 이스탄불 흑해를 향해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통기자회견을 열어 “IS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양국은 IS를 파괴하는데 단결돼 있다”고 밝혔다. IS 격퇴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양국의 정상이 회동한 것은 파리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던 올란드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2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각각 만나 IS 대응방안과 시리아 위기를 의논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크렘린 “터키 피격 대응 불가피 나토 반응에 따라 조치 취할 것”

“시리아 영공 비행” 주장

러시아 크렘린궁은 24일(현지시간)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과 관련 터키 측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전면적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는가”란 질문에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며 “다만 터키 측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어떤 선행에 흔들려선 안 되겠지만 동시에 그러한 행동과 관련 러시아 아무런 결과없이 지나가기도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러시아 측 대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

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특별회의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라며 “터키 측의 도발적이고 허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터키와 나토 측의 반응을 배서 전폭기 피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페스코프는 “터키가 러시아 전폭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공식 증거를 제시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의 자체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가 시리아 영공을 비행하다 격추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터키 측이 전폭기 격추 사건과 관련 러시아 측과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혀 사건 뒤 양국 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

시카고 경찰 ‘16발 발사’ 흑인 살해 장면 공개... 분노한 시민 거리로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에서 백인 경찰관이 총 16발을 발사해 흑인 청년을 살해한 동영상 사건의 발생 13개월 만에 공개됐다. 이번 영상 공개로 흑인 청년이 경찰의 과잉대응 때문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폭동까지 발생한 ‘퍼거슨 사태’나 ‘볼티모어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에도 경찰의 체포 장면을 찍은 일반인 동영상에 폭동을 일으킨 도화선이 됐다.



경찰차 내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 소리는 없었지만 당시 현장 상황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도로 중앙선을 뛰어넘어가던 맥도널드가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몸을 돌리는 순간 총에 맞아 도로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경찰이 도로에 떨어진 칼을 발로 차고 맥도널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장면이 이어졌다.

다이크를 기소한 에니타 알바레스 검사는 다이크가 현장에 도착한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총을 찌고 설명했다. 총격은 14~15초간 이어졌고 이 가운데 13초 동안은 맥도널드가 이미 총에 맞아 도로에 쓰러져있던 상황이었다고 검찰측은 강조했다. 맥도널드가 작은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이 발사됐을 당시 경찰들과 4.6m 정도 떨어진 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영상이 설명해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목격자들도 맥도널드가 작은 칼을 갖고 있었지만 다이크에게 말을 걸거나 위협을 가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는 시점에 영상이 공개됐지만 흑인 청년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지 시카고 시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시카고 거리를 가로질러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백인 경찰관이 흑인 청년 라쿠안 맥도널드(당시 17세)를 살해한 장면을 담은 영상. <유튜브 캡처>

佛 검찰 “아바우드, 또 다른 테러 준비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파리 연쇄 테러 총책으로 지목된 압델하미드 아바우드(28)가 추가 테러를 준비했다고 프랑스 검찰이 24일 밝혔다.

프랑스야 폴랭스 파리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바우드를 포함한 2명의 테러범이 (파리 외곽) 상업지구인 라데팡스에서 18일 또는 19일 폭탄을 터뜨려 자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모로코계 벨기에인인 아바우드는 지난 13일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 공격 등

130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 연쇄 테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우드는 또 13일 공범들이 파리 시내 바타클랑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당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바우드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결과 아바우드가 인질극 당시 현장에 돌아왔다고 전했다. 바타클랑에서는 당시 인질극 등으로 시민 90명이 숨졌다. 아바우드는 지난 18일 경찰이 파리 은신처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연합뉴스

미국, 남중국해에서 日과 공동훈련 계속한다

미국과 일본은 미군과 자위대의 남중국해 공동훈련을 계속하기로 했다.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4일(현지시간) ‘캠프 스미스’에서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두 사람은 남중국해에서 미·일·호주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동훈련 등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섬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

카타니와 해리스는 이와 함께 중일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경계·감시를 할 계획은 없지만, 지금까지도 해상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고, 계속 그런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레식당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